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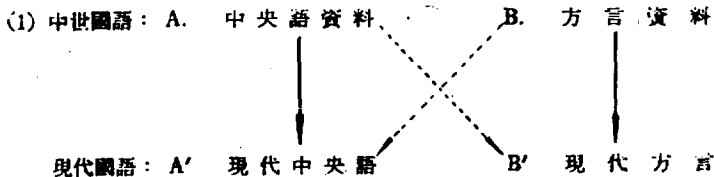
# 南部方言의 圓唇母音化와 母音體系

—求禮地域語의 ‘ㄱ>ㅇ’를 中心으로—

李 丞 宰\*

## 1. 序 論

既往의 音韻論的 方言研究는 中世中央語의 文獻資料에는 存在하였으나 現在에는 존재하지 않는 音韻을 中心으로 進行되었다. 그러나 中央語와 方言들 사이에는 이미 中世語의 段階에서부터 言語差가 存在했을 可能性은 많으므로, 中央語의 史的資料와 現在의 方言을 直接적으로 比較·對照하는 方法은 再考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言語의 歷史的研究는 바로 그 言語自體의 言語資料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類似한 方言의 言語資料를 밑 바탕으로 할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既往의 方言研究는 A와 A'를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B'와 對應시킴으로써 여러가지 方法論的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에 對하여 A와 A'는 간접적인 影響을 줄 수 있을 뿐이지만 B는 가장 直接적이고 실질적인 史的發達을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B'를 研究하는 데는 B가 가장 重要한데, 실제로 B가 現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B를 거의 참고하지 않고 方言研究를 行하여야 할 立場에 놓여 있다. 이를 逆으로 말하면, B'를

\* 國語國文學科 四學年

資料로 B를 再構해야 할 立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方言研究의 方向과 對象은 수정되어야 하리라 본다. 즉 B'만을 方言研究의 對象으로 할 것이 아니라 B도 研究의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B를 研究의 對象으로 삼는다면 通時論的 方言研究가 可能함을 뜻하고, 나아가서 中央語만의 國語史가 아닌, 方言의 歷史를 포함한 진정한 意味의 國語史를 整理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면, 어떤 方法으로 B를 研究할 것인가? 可能해 보이는 方法은 우선 주위의 여러 方言에 對한 共時的 記述을 行하므로써 여기에서 나타나는 言語接觸現象을 解明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sup>1)</sup> 즉, 共時的으로는 方言接觸現象을 이용하고 通時的으로는 어느 정도 定立되어 가고 있는 中央語의 歷史를 참고하여 方言의 歷史를 假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시작한 本稿는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에 觀心을 기울일 것이다. 求禮地域語는 全羅南道의 東北部에 위치하고 있는 西南方言의 下位方言으로서, 北으로 全羅北道의 南原郡과 東으로 慶尙南道의 河東郡과 접촉하고 있는 接觸方言의 性格을 띤다. 이 求禮地域語의 史的 方言資料로서 「勸念要錄」<sup>2)</sup>이 傳해지고 있음은 무척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勸念要錄」이 求禮地域語의 方言의 特徵을 보이고 있다는 點에서 더욱 重要視된다. (田光鉉 1970, 참조). 本稿는 이 資料와 現代求禮地域語, 그리고 現代中央語를 서로 對比하면서 求禮地域語의 'ㅇ' 消失에 關聯된 몇 問題를 記述하려 한다.<sup>3)</sup> 그런데, 中央語에서와는 달리 唇音下에서 'ㅇ>오'의 變化가 求禮地域語(나아가서 대부분의 南部方言)에 存在한다는 것은 흥미를 불

1) 言語接觸現象에 對해서는 U. Weinreich(1968)을 참조. 李秉根(1976)은 通時的 研究의 方法으로 方言間的 接觸現象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崇德二年秋七月初吉日求禮地華嚴寺開刊'이라는 刊記에서 이 「勸念要錄」은 1637年 즉 17世紀初에 開刊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주 重要한 方言資料가 된다. 그러나, 그 刊記가 序·本文과는 달리 陰刻되어 있다는 點에서 그 刊記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方言을 서로 對比시킨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作業이다. 무엇보다도 各 下位方言에 對한 多角的이고 綜合的인 調査·分析이 方言을 對比하기 前에 先行되어야 한다. 즉, 語彙에서든, 文法에서든 各 方言을 얼마간 獨自의 體系로 考察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이 點에 關해서는 李翊燮(1972) 참조.

러 일으키는 問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現象에 中心을 두어 母音體系를 假定하고 그 以後의 變化를 추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되도록이면 音韻規則의 歷史的 順位에 따라 叙述하게 될 것이다. 물론, 各各의 音韻變化는 史的인 觀點에서 볼 때 絶對的 年代가 있을 수 있으나, 絶對的 年代는 可變的인 可能性이 많고 또한 相對的 年代가 오히려 絶對的 年代보다 有用한 경우가 많으므로 本稿는 相對的 順位를 主로 밝혀 나아가게 될 것이다.<sup>4)</sup>

## 2. 圓唇母音化와 母音體系

### ① ‘오’의 設定과 ‘오>으’

우선 論議에 들어가기에 앞서 求禮地域語의 歷史的 어느 段階에서 ‘오’가 存在하였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듯이 求禮地域語에서도 ‘오’가 在存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듯이 보인다. 우선 「勸念要錄」을 살펴 보면 中世中央語에서 ‘오’로 表記되는 例들은 거의 모두 ‘오’로 表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點에서 現代中央語와 現代求禮地域語의 여러 單語들의 基底形이 같았으리라 假定할 수 있다. 例를 들면 ‘馬, 에 對한 現代中央語의 [mal], 現代求禮地域語의 [mol] 등은 歷史的 어느 段階에서는 모두 /물/로 假定될 수 있는 것이다.<sup>5)</sup> 또한 現代求禮地域語의 母音調和現象을 살펴 보더라도 ‘오’가 設定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2) ‘가물—’	[kamurasə]	[kamulmən]
‘가꾸—’	[ka'kwara]	[ka'kundago]
‘고프—’	[kop <sup>h</sup> asə]	[kop <sup>h</sup> udago]
‘달구—’	[talgwaya]	[talgundago]
‘바쁘—’	[pa'pasə]	[pa'pudago]
‘잡그—’	[čəngara]	[čəngugo]

4) P. Kiparsky(1971). p.57 참조. 사실상 音韻變化의 相對的 順位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歷史音韻學은 存在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5) / /는 基底表示를 [ ]는 音聲表示를 나타내기로 하고 특별히 이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 ’나 ( )를 사용한다. 그리고 로마文字는 現代求禮地域語에 한글表記는 史的資料와 現代中央語의 경우에 사용한다.

위의 例들에서 語幹末母音이 母音調和現象에 陰性的 역할을 하는 母音인데도 불구하고 陽性母音 ‘아’를 取한다는 것은 어떤 母音이 ‘으’로 變化함으로써 ‘으’가 部分中立을 지키고 있음을 말해 주며,<sup>6)</sup> 그 母音이 바로 母音調和의 대립적인 ‘으’였으리라 추정하는 것이다. ‘으’가 音素로 받아들여진다면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는 ‘이’, ‘어’, ‘으’, ‘우’, ‘아’, ‘우’, ‘오’의 7개 單母音을 가진다 할 수 있다.

그런데, 中央語에서는 16世紀가 되면 第二音節 以下の ‘으’는 ‘으’로 變化하는데 求禮地域語에서도 이 變化가 있었던 것 같다. (2)의 例들은 이러한 變化를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第二音節 以下에서의 ‘으>으’의 音韻變化가 없었다고 한다면 後述할 圓唇母音化에 依하여 ‘나비, 누물, 학물며’ 등이 \*[nabo], \*[nəmol], \*[həmolme] 등으로 各各 發音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各各 [nabu], [nəmul], [həmulme] 등으로 發音되므로 圓唇母音化에 先行하여 ‘으>으’의 變化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第二音節 以下에서의 ‘으>으’는 무엇을 意味하는가? 간단히 公式化 하면 ‘으→으/(C)V-’가 될 것인데 이는 ‘으’와 ‘으’가 自然部類를 이룸을 뜻한다. 이 自然部類라는 概念은 音韻體系를 再構하는 데 훌륭한 基準이 될 수 있다. 가령 近世中央語에

$$t \rightarrow \check{c} / \_ \left\{ \begin{array}{l} i \\ y \end{array} \right.$$

의 口蓋音化現象이 나타나는데, 이는 t와 ǰ가 自然部類를 이룸을 意味하고 나아가서 當時 子音體系는 [grave]라는 示差的 資質에 依한 對立關係를 가지고 있었음을 意味할 수도 있다. 또한 i와 y가 [+palatal]이라는 示差的 資質로 묶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ǰ도 이 部類에 속함을 意味한다. 한편으로 t는 i, y와 自然部類를 이루지 못함을 意味할 수도 있다.<sup>7)</sup> (Hyman, 1975

6) 李基文(1972) p. 203 참조. 그런데 現代國語에서의 母音調和現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問題로 남을 것이다. Rule Ordering에 依한 해결책과 部分中立母音 ‘으’를 基底에서 /i/와 /ʌ/로 分離하여 생각하는 方法 등이 있을 수 있으나 母音調和를 설명하는 데 完全을 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7) 하나의 例를 더 들어 보기로 하자. 가령 올라우트는

pp. 139~140 참조) 이러한 自然部類에 依한 對立關係는 母音體系를 再構하는 데 훌륭한 基準이 될 수 있는 것이다. 既往의 研究에서는 그 基準으로 訓民正音 制子解, 外國語 轉寫法 등이 決定的 역할을 하여 왔으나(金完鎭 1963, 李基文 1969 등) 訓民正音 合字解에 中央語와 方言間의 差異가 存在하고 있었음이 記錄되고 있고<sup>8)</sup> 또한 南部方言(특히 求禮地域語)과 外國語間의 轉寫體系를 보여 주는 文獻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므로 本稿에서는 이 自然部類를 基準으로 論議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完全한 異化作用을 意味하는 音韻規則을 제의한다면, 지금까지의 몇 例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音韻規則에는 自然部類의 內容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自然部類는 音韻體系의 再構에 확고한 基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完全한 異化作用을 나타내는 規則이라 하더라도 그 規則이 適用되기 以前의 상태는 오히려 自然部類를 이루고 있을 可能性이 크므로 crazy rule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音韻規則은 音韻體系의 再構에 有用하리라<sup>9)</sup> 느껴지는 것이다. 물론 音韻規則을 어떻게 定義하느냐가 問題이겠지만 本稿에서는 史的 音韻變化를 公式化한 것으로서의 音韻規則이라는 用語를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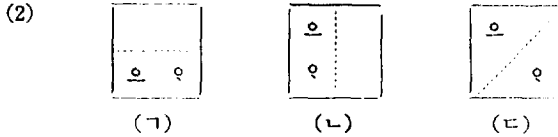
이러한 觀點에 선다면 第二音節 以下에서의 ‘ㄹ>으’는 ‘ㄹ’와 ‘으’가 自然部類를 이룸을 뜻하고 또한 이 兩者는 전혀 無關한 위치에 올 수 없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ㄹ’은 적어도 ‘으’로 變化할 수 있는 위치에서 發音되었으리라 보여진다. 또한 音韻變化가 대각적(diagonal)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수직적(vertical), 수평적(horizontal)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적고 값

$$[+back] \longrightarrow [-back] / \text{---} C_1 \begin{bmatrix} +high \\ -back \\ -round \end{bmatrix} \quad (\text{Condition : } C_1 = \overset{C}{[-grave]})$$

로 公式化할 수 있는데, 이는 이 規則을 가지는 音韻은 前舌母音과 後舌母音間의 對立關係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8) ‘·一起」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기之類’라 하고 있는데, 이는 當時 中央語의 母音體系에 對한 解釋이 方言의 母音體系에 그대로 適用될 수 없음을 示唆할지도 모른다. (李基文 1972 p. 138)
- 9) P. Kiparsky (1968 7), p. 5. “보호색으로 보호되어 정글에 숨어 울부짖는 호랑이는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듯이, 音韻體系에서의 여러 變化는 숨겨진 構造를 드러내 줌이 일반적이다.”

이 비싸기 때문에 ‘으’와 ‘우’가 수직적대립을 이루거나 수평적대립을 이룰 蓋然性은 대각적대립을 이룰 蓋然性보다 훨씬 높다.



즉, (3)의 (가)이나 (나)이 (다)보다 自然部類로 묶일 可能性이 훨씬 많으며, (3)의 (다)은 아예 自然部類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일단 (다)案을 제외하고 다음의 論議를 계속하기로 하겠다.

### ② 圓唇母音化 ‘으>우’, ‘우>오’

‘우>오’를 論議할 때 ‘우>오’의 變化는 圓唇母音化와 關聯될 수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제 圓唇母音化가 어떤 音韻變化인가를 規定하고 圓唇母音化가 母音體系에 對하여 무엇을 示唆해 주는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一般的으로 圓唇母音化는 圓唇性子音에 同化되어 非圓唇母音이 圓唇母音으로 變化하는 것을 뜻한다. 圓唇性子音은 ‘口, ㅂ, ㅃ, ㅍ’ 등의 唇音에 局限되고<sup>10)</sup> 被同化音에 後行하는 音素는 거의 대부분 ‘ㄴ, ㄷ, ㄱ, ㅅ’ 등의 子音에 局限된다. 따라서, 前項에서 ‘나비>나뉘’를 圓唇母音化라고 받아 들였던 點에는 약간의 問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휘->피->피-(開)’, ‘휘->비->비-(空)’, ‘휘우->피우->피우-(燒)’ 등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y系 下向性二重母音인 경우에는 오히려 非圓唇母音化를 겪기 때문이다. (李秉根 1970 7 참조) 또한 다음의 例들에서도 결코 圓唇母音化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4) ‘매-’ (桔)	[mæ'ta]	(미- 月釋序 24)
‘매’ (臍)	[mek]	(익, 訓蒙上 28)
‘만들-’	[mæggirasə]	(법공-, 訓正)
‘배꼽’	[pæ'kop]	(비북, 牛夜方 8)

10) ‘ㄴ’을 圓唇母音化의 同化主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ㄴ’ 自體가 ‘β>ω’의 變化를 보이기 때문이다.

'배우-'	[pewayə]	(비호-, 釋譜序 2)
'패-'(穩)	[p <sup>h</sup> ēsə]	(피-, 譯語下 8)

즉, 圓唇性子音에 後續하는 y系 下向性二重母音은 圓唇母音化를 겪지 않고 오히려 後述할 '오>아'와 單母音化를 겪는다. 이는 圓唇母音化의 被同化音에 後續하는 環境을 고려해야 함을 뜻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環境에는 'ㄴ, ㄷ, ㄹ, ㅅ' 등이 一般的이다.

그런데, 求禮地域語에서 問題되는 것은 後續子音으로서 'ㄴ, ㄷ, ㄹ, ㅅ' 등에 'ㅈ, ㅊ'이 포함될 수 있는나의 問題이다. '브즈런이(勸念 7)', '브친고(勸念 8)' 등의 例는 'ㅈ, ㅊ' 앞에서도 圓唇母音化가 일어남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求禮地域語에서는 'ㄴ, ㄷ, ㄹ, ㅅ, ㅈ, ㅊ' 등의 子音 앞에서 圓唇母音化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求禮地域語의 圓唇母音化 環境은 '[+ant  
+grave] — [C  
-grave]'로 記述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위와 같은 環境에서 '으'뿐만 아니라 '오'도 圓唇母音化하여 各各 '우'와 '오'로 變化한다. 求禮地域語에서 '오'가 圓唇母音化하여 '우'로 變化한다는 事實은 中央語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現象으로, 오래 前부터 밝혀진 事實이긴 하나 과연 이것이 母音體系에 對하여 무엇을 意味하는지 究明된 바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5) '마디'(節)	[modi]	(마디, 光州千字 16.6)
'마르-'(裁)	[morindago]	(마르, 訓蒙下 19)
'마르-'(枯)	[molla'ta]	(마르, 倭解下 30)
'마을'(村)	[mosil]	(마을, 月釋一 46)
'만지-'(揀)	[mon <sup>h</sup> eya]	(만지거늘, 月釋一 36)
'말아들'(伯)	[moda:di']	(말, 光州千字 15. b)

11) 「勸念要錄」에 보면 많은 口蓋音化의 例가 나온다. 이들 口蓋音化의 例로 짐작하건대, 'ㅈ, ㅊ' 등은 各各 /t/, /t<sup>h</sup>/였을 것이다. 이는 圓唇母音化의 後續子音이 [+cor]이 아닌 [-grave]임을 뜻한다. 그런데 '므겁->무겁-' 등의 여러 例에서는 後續子音이 [-grave]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圓唇母音化를 일으킨 것 같다. '오'가 [+grave] 子音 앞에서 圓唇母音化하는 例는 찾아내기 힘들다. 이는 資料의 制約에서 緣由된 것인지도 모른다. '뽕귀' > [pokčü]의 變化는 2.1.1.1. Ordering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말-'(馬)	[mol]	(말, 龍歌 31章)
'말-'(混)	[moramugəra]	
'말코-'(柚)	[molk'bo]	(말승, 訓蒙中 18)
'말-'(澄)	[molgaya]	(말켜, 勸念 13)
'바르-'(塗)	[porindago]	(바르고, 法華六 141)
'빨-'(滌)	[p'pōndago]	(빨한, 類合下 7)
'박취-'(蝠)	[p'pök'cü]	(박취, 訓蒙上 22)
'밝-'(明)	[polgaya]	(밝는, 勸念 3)
'밟-'(踏)	[polbaya]	(밟보더, 釋譜六 34)
'부시-'(照)	[posesə]	(부시, 訓蒙下 一)
'부수-'(碎)	[p'posugunda]	(부수디, 月釋二十一, 219)
'파리-'(蠅)	[p'p'ori]	(파리, 訓蒙上 21)
'팔-'(臂)	[p'p'ol]	(팔히, 內訓二 30)
'밭-'(壟)	[p'p'ot]	(밭, 訓蒙上 13)

위의 예들이 보여 주는 것은 '으'의 圓唇母音화와 '오'의 圓唇母音화가 同一한 音韻過程이라는 點이다. '으' 圓唇母音化 環境과 '오>우'의 環境은 거의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으>우'와 '오>우'를 모두 圓唇母音化라 稱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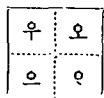
이 圓唇母音化는 母音體系에 對하여 重要的 事實을 提示해 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한다. 圓唇性子音에 同化되어 '으'와 '오'가 各各 '우'와 '오'로 變化한다는 것은 '으'와 '우', '오'와 '오'가 各各 圓唇性的 有無에 依한 대립작임을 말해준다. 나아가서 '우'와 '오'는 圓唇母音을 表記하는 데 使用되었다고 斷定할 수 있다. 즉, 圓唇性에 同化되어 '으'가 '우', '오'가 '오'로 各各 表記된다는 것은 이미 '우'와 '오'가 圓唇母音 [u]와 [o]였다는 것을 前提하기 때문이다.<sup>12)</sup> 이미 (3)의 表에서 대각적인

12) [c], [j] 등이 [č], [j] 등으로 變化한 다음에야 비로소 t口蓋音化가 일어날 수 있다는 主張과 並行된다. (李基文 1972) 참조. 한편 S. Schane(1973)은 SPE 以來로 받아들여져 왔던  $\left[ \begin{smallmatrix} -low \\ \alpha \text{ back}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alpha \text{ round}]$ 라는 M. S. Rule을  $\left[ \begin{smallmatrix} -low \\ \alpha \text{ round}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alpha \text{ back}]$ 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求禮地域語에서는 '으'나 '오'가 後舌母音으로서 圓唇性을 取得하는 方向으로 記述되므로  $\left[ \begin{smallmatrix} -low \\ \alpha \text{ back}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alpha \text{ round}]$ 라는 M. S. Rule이 오히려 올바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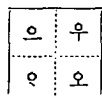


音韻變化를 否定한 바 있는데 ‘으’와 ‘오’의 위치를 수직적으로 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평적으로 놓을 것인가의 問題를 뒤로 미루었었다. 이것과 圓唇母音化를 關聯시킨다면 求禮地域語의 ‘으’, ‘오’, ‘우’, ‘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定할 수 있게 된다.

(6)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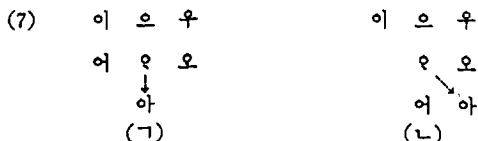


(ㄴ)

그렇다면 (6)의 (ㄱ)과 (ㄴ)案을 假定할 수 있는데 (ㄴ)案이 (ㄱ)案에 比하여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ㄱ)案이 채택된다면 [u]를 담당하고 나서 ‘우’가 中舌의 위치에 음을 意味하는데, 圓唇母音 [u]가 中舌의 위치에 오는 體系는 손쉽게 찾아 볼 수 없다. 音韻論의 普遍性(phonological universals)에 따른다면 [u]는 반드시 後舌高母音의 위치에 와야 하며 실제로 이를 違反하는 音韻體系는 거의 없는 것이다. 만약에 (ㄱ)案을 채택하면서 ‘우’가 [tt]를 表記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우’가 ‘으’의 圓唇性에 의한 代償적으로 機能하는지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本稿는 (6)의 (ㄴ)案을 채택한다.

③ ‘으>아’

이제 本稿는 ‘이’, ‘어’, ‘아’의 위치를 決定하여야 할 段階에 왔다. 이들 母音과 關聯될 수 있는 音韻變化는 母音調和<sup>13)</sup>와 ‘으>아’의 變化이다. 우선 ‘이’는 前舌高母音의 위치에 온다는 것을 再論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와 ‘아’의 위치에 關해서만 論議하겠다. ‘어’와 ‘아’의 위치는 다음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想定된다.



13) 母音調和에 對한 理論은 많이 發展했으며 國語의 母音調和現象은 一律

(7)의 (ㄴ)案은 前舌母音으로 처리될 수 있는 母音은 ‘이’ 하나밖에 없고, 後舌로 처리될 수 있는 母音中에는 低舌母音이 두 개나 存在한다는 結果를 가져 온다. 이러한 點에서 (7)의 (ㄴ)案은 音韻論的 普遍性에 違反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大각적 音韻變化를 허용하고 있다는 點에서 (ㄴ)案을 채택하는 데는 躊躇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어’가 만약에 低舌의 위치에 온다고 하면 ‘에’가 後述할 單母音化에 의하여 \*[e]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點이다. 즉, y系 下向性 二重母音이 축약(Contraction)에 의하여 單母音化할 때, 求禮地域語의 ‘에’는 거의 모두 [e]로 發音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7)의 (ㄱ)이 고려될 수 있다. 이 體系는 ‘으>아’의 變化를 수직적 變化로 나타내므로 (ㄴ)案보다는 바람직한 體系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의 (ㄱ)案은 全體의으로 對稱을 이루고 있다는 點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問題되는 것이 있다면 ‘어’가 과연 前舌母音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求禮地域語의 ‘舌’이 ‘혀>\*해>세>세>세’의 歷史的 發達을 보였다고 한다면 ‘어’는 적어도 前舌에 치우친 母音이었으리라 解釋할 수 있다.(金完鎮 1963, 참조)

### 3. 方言差

지금까지 本稿는 求禮地域語의 史的인 어느 段階에서의 母音體系를 (7)의 (ㄱ)으로 假定하여 보았다. 그러면 결국 中央語에 對하여 假定되고 있는 다음의 두 母音體系와는 다르다는 結果를 가져 오므로 方言差에 對한 記述을 行할 필요가 있다.

(8)	이    우    으 ↑    ↑ 으    으 어    아 (ㄱ)	이    으→우 어    으 ↑ 아    으 (ㄴ)
-----	--	--

의으로 記述되지 않는다는 點에서 crazy rule의 性格을 띤다. 母音調和에 對한 理論은 R. M. Vago(1972)에 잘 要約되어 있다.

(8)의 (7)案은 무엇보다도 圓唇母音化에 의하여 圓唇母音으로 파악되는 ‘우’가 中舌의 위치에 온다는 點에서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8)의 (ㄴ)案은 ‘으>우’ 圓唇母音化는 수평적으로, ‘오>우’ 圓唇母音化는 수직적으로 파악한다는 點에서 一般性を 잃는다. 따라서 (8)의 (ㄴ)案도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데, 求禮地域語에서는 ‘오>우’의 圓唇母音化가 존재하는 데 反해서 中央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方言差를 Rule Reordering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ule Reordering은 P와 Q라는 두 方言에 同一한 規則이 存在하되 그 規則의 順序만이 逆으로 나타남으로써 方言差가 나타난다는 理論이다. (P. Kiparsky 1968ㄴ, 1971. 참조) 이에 따르면 中央語의 圓唇母音化와 求禮地域語의 그것은 서로 同一한 것인데 ‘오>우’와의 規則順序가 서로 뒤 바뀌었을 뿐이라는 主張이 된다. 즉, 中央語에서는 (b) ‘오>우’ (a) 圓唇母音化의 順序로, 求禮地域語에서는 (a) 圓唇母音化 (b) ‘오>우’의 順序로 適用된 것으로 파악한다.

(9)	中央語		求禮地域語
		/포리/	/포리/
	(b) ‘오>우’	파리	(a) 圓唇母音化
	(a) 圓唇母音化	—	(b) ‘오>우’
		[p <sup>h</sup> ari]	[p <sup>h</sup> ori]

그런데 圓唇母音化와 ‘오>우’의 變化環境을 엄격히 記述해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圓唇母音化의 環境은 (a)  $\left[ \begin{matrix} +ant \\ +grave \end{matrix} \right] - \left[ \begin{matrix} C \\ -grave \end{matrix} \right]$  라고 할 수 있는데, ‘오>우’는 이 環境 以外의 環境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a) 以外의 環境은 [ant]와 [grave] 實質로는 記述되지 않는다는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非唇音을 [-labial]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labial] 實質이 普遍的인 實質이 아니므로 ‘오>우’의 環境은 (b) Elsewhere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다. (P. Kiparsky 1973ㄱ 참조) 그렇다면 中央語에서는 Elsewhere Condition을 이루는 ‘오>우’의 變化가 圓唇母音化보다 先行하여 일어났다는 結果를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은 一般성을 띤 解釋態度라 할 수 없다. 즉

‘Elsewhere’라는 概念을 생각해 보거나 ‘Elsewhere’가 自然部類를 이루기 힘든 環境이라는 點을 생각해 볼 때, ‘Elsewhere’에서 音韻變化가 먼저 일어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오>아’가 圓唇母音化와 同時에 일어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아’가 圓唇母音化에 先行하여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을 實證으로 뒷받침해 주는 史實로 中央語의 경우 圓唇母音化는 17世紀末에 ‘오>아’는 18世紀 初·中葉에 일어났다는 點을 들 수 있다.

결국, Rule Reordering에 依하여 中央語와 求禮地域語의 方言差를 論議하려 했던 方法은 實際的인 面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 한편, 圓唇母音化와 ‘오>아’의 變化는 ‘오’의 消失이라는 面에서 보면 單一의 音韻過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求禮地域語에서는 ‘오>오’의 圓唇母音化와 ‘오>아’와의 變化는 單一한 變化이되 그 環境이 相補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이에 反해서 中央語에서는 과연 ‘오>오’와 ‘오>아’가 相補的인 環境에서 일어난 變化이었던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求禮地域語에서는 ‘오>오’와 ‘오>아’가 相補的 環境을 이룸으로써 이 둘은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Bleeding & Counter-bleeding order를 이룰 수 없다. 反面에 中央語에서는 相補的 環境을 이루지 않을 可能性이 있으므로 Bleeding & Counter-bleeding order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14) 求禮地域語의 ‘오’ 消失은

$$\text{오} \long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오} / \left[ \begin{array}{c} \text{C} \\ +\text{ant} \\ +\text{grave} \end{array} \right] \text{---} \left[ \begin{array}{c} \text{C} \\ -\text{grave}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text{(a)}$$

$$\text{아} / \text{Elsewhere} \text{---} \text{(b)}$$

로 記述될 수 있는데, 비록 Brace notation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disjunctive ordering을 이룬다. 이 때, Subpart(b)는 Subpart(a)에 영향을 받지 않은 形에만 적용된다. J. B. Hooper(1976)는 “all proposals concerning disjunctive ordering have maintained that the environments of the subparts be complementary and that the more specific rules PRECEDE the more general rules (The most general rule will be the “elsewhere case”)”라 하여 Elsewhere의 경우에는 항상 나중에 適用됨이 學者들의 一般的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15) ‘註 14’를 참조.

16) ‘오>오’의 圓唇母音化와 ‘오>아’를 Brace notation과 Disjunctive ordering으로

이 點에 着眼하여 本稿에서는 Rule Reordering에 의한 해결책이 假定하고 있는 規則의 同一性에 問題가 있다고 본다. 즉, Rule Reordering에 의한 解釋에서는 두 方言에서의 規則이 完全히 同一하되 그 順序만 다르다고 假定하고 있는데, 이러한 立場에 서지 않는다면 그 假定과는 달리 두 規則이 各各의 方言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主張이 可能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音韻規則이 두 方言間에 差異를 보인다면 이는 音韻體系가 서로 다를 可能性을 暗示한다.

本稿는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는 中央語의 그것과는 서로 달랐음을 假定한 바 있다.<sup>17)</sup> 만약 中央語의 母音體系를 (8)의 (L)案이라 하고 求禮地域語의 그것을 (7)의 (Γ)案이라 한다면 ‘o>o’의 方言差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8)의 (L)案에서 ‘o>o’의 圓唇母音化가 있었다면, 이는 圓唇母音化가 수평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수직적인 音韻變化였다는 點에서 crazy rule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8)의 (L)案이라는 母音體系에서는 當然히 高母音에서만 圓唇母音化가 일어날 수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sup>18)</sup> 反面에 (7)의 (Γ)案은 [-low]인 母音으로서 後舌에 위치하는 母音은 圓唇母音化를 겪는다는 自然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8)의 (L)案과는 달리 (7)의 (Γ)案에서는 ‘o’ 뿐만 아니라 ‘o’도 수평적 圓唇母音化를 겪는 것이므로 至極히 自然스러운 音韻變化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결국, 求禮地域語와 中央語에서의 圓唇母音化 規則은 各各 다음과 같이 記述

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두 規則이 Bleeding & Counter-bleeding order를 이룰 可能性이 完全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Koutsoudas et.(1974) 참조. 한해 Disjunctive ordering은 거의 모두 Parenthesis notation의 形式을 취한다는 SPE의 主張은 이들의 경우에는 옳지 못하다.

- 17) 이는 이미 李秉根(1970L), 李基文(1977L) 등에서 示唆되어 온 바 있다.
- 18) 京畿地域語에서는 [o]가 오히려 非圓唇母音化를 경험하므로써, 後舌母音에서의 中母音間的 ‘o→o’ 非圓唇母音化는 高母音間的 ‘i→u’ 圓唇母音化와 相反된 方向을 취한다는 李秉根(1970Γ)의 論議는 本稿와 거의 同軌이다.
- 19) Rule Reordering에 의한 해결책 대신 規則의 差異에서 方言差를 說明하려 했던 論文으로 Dinnsen & Koutsoudas(1976)이 관심을 끈다. 이 論文은 또한 두 方言間에서의 미세한 規則上的 差異가 /b/와 /v/의 對立이 存在하는 方言과 그렇지 않은 方言間的 子音體系的 相違성과 관계있다는 것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될 수 있다.

(10) 圓唇母音化

$$\begin{array}{l} \text{求禮地域語: } \left[ \begin{array}{c} \text{V} \\ +\text{back} \\ -\text{low} \end{array} \right] \longrightarrow [+round] / \left[ \begin{array}{c} \text{C} \\ +\text{ant} \\ +\text{grave} \end{array} \right] \long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C} \\ -\text{grave} \end{array} \right] \\ \text{中 央 語: } \left[ \begin{array}{c} \text{V} \\ +\text{high} \\ +\text{back} \end{array} \right] \longrightarrow [+round] / \left[ \begin{array}{c} \text{C} \\ +\text{ant} \\ +\text{grave} \end{array} \right] \longrightarrow \left[ \begin{array}{c} \text{C} \\ +\text{cor} \end{array} \right] \end{array}$$

#### 4. 母音體系의 變化

(7)의 (ㄱ)案은 求禮地域語의 歷史的 發達過程中的 어느 한 段階에 속하는 母音體系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母音體系를 갖게 된 原因과 그 變化過程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本稿는 (7)의 (ㄴ)案에 앞서는 段階의 母音體系에 對하여 論할 수 있는 立場에 있지 않다. (7)의 (ㄴ)案에 뒤따르는 變化만을 假定해 보는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7)의 (ㄴ)案은 ‘ㅇ’가 完全消失함에 따라 音素의 地위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커다란 變化를 입게 된다. 그리하여 (7)의 (ㄴ)案은 다음과 같은 體系로 變한다고 보여진다.

$$(11) \quad \begin{array}{ccc} \text{이} & \text{으} & \text{우} \\ & \text{어} & \text{오} \\ & \text{아} & \end{array}$$

(11)과 같은 體系를 變하기 위해서는 ‘어’가 中舌쪽으로 움직였다고 하여야 한다.<sup>20)</sup> 만약에 ‘ㅇ’가 完全消失되고 난 다음에 ‘어’가 中舌쪽으로 移動하지 않았다면 (7)의 (ㄴ)案은 흔히 論議되는 現代東南方言의 母音體系와 類似하게 된다.

$$(12) \quad \begin{array}{ccc} \text{i} & \text{ɛ} & \text{u} \\ \text{E} & \text{a} & \text{o} \end{array}$$

20) 李秉根(1970-)의 p.387. “...’.’의 音韻消失 이후 短母音 ‘어’의 移動에 따라 ‘으’와의 安全間隔이 넓어지고 ‘오’와 완전히 圓唇性에 依하여 對立의 작을 이루게 됨...”

그러나 本稿에서는 現代東南方言이 어떤 母音體系를 가지는지 詳論할 수 없으므로 (12)에 對한 論議는 뒤로 미룬다.

아무튼 (11)과 같은 體系는 ‘오’가 完全히 消失되었을 때, ‘어’가 ‘오’의 위치를 메꾼 體系라 할 수 있는데, 結果的으로 前舌母音이 ‘이’ 밖에 없다는 不均衡을 초래한다. 이러한 不均衡을 均衡적인 體系로 만들기 위해서는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體系는 (13)이다. (李崇寧, 1954 참조)

(13)	이(위)	으	우
	에(외)	어	오
	애	아	

여기서 ‘위’와 ‘외’ 單母音化가 ‘에’와 ‘애’의 單母音化와 時期的으로 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본다. 여기에는 齒擦音下에서의 前舌母音化現象을 참고 할 수 있다. [kasim](가슴), [kasil](가을), [ʔsilge](쓸개), [puʃirəni](부지런이<브즈런이) 등의 例에서 볼 수 있는 이 現象은 ‘우’나 ‘오’의 경우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즉, [ʔkocʰi](고추<고초), [macʰindago](맞추-<마초-), [musi](무우<무수) 등으로 發音되지 \* [macʰündago], \*[musü] 등으로 發音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와 ‘애’가 單母音化한 以後에야 비로소 ‘위’와 ‘외’가 單母音化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李乘根 1970년 참조) [čügera](죽이-), [öggera](옮기-), [tʰöpilbe](통일벼) 등의 움라우트 例에서 ‘위’와 ‘외’는 單母音化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움라우트는 南部方言뿐만 아니라 中部方言, 北部方言에까지도 一般化되었다 하더라도 南部方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21)</sup> 즉, 求禮地域語의 움라우트를 調査해 보면 中央語의 움라우트보다 훨씬 制約이 적음을 알 수 있다. (李乘根 1971, 참조)

21) 이미 17世紀初에 口蓋音化가 있었다는 것과 결부될 수 있다. 즉 「勸念要錄」에 ‘에미(母)’라는 表記가 보이는데 口蓋音化와 움라우트는 그 規則適用이 相互背他的(mutually exclusive)인 하나의 音韻過程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이 모두 「勸念要錄」에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註 11’ 참조

결국, 中央語에서보다 求禮地域語에서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빨리 일어났음을 暗示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現代의 求禮地域語에서는 다음의 10母音體系가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

(14)	i	ü	i	u
	e	ö	ə	o
	ɛ		a	

現代求禮地域語에서는 [ə]와 [ɛ]의 區別이 흐려지고 있기는 하나 다음의 例들이 最小對立을 이루고 있음은 확실하다.

(15)	개(犬)	:	게(蟹)
	(아기를) 뺐다 :	(베개를) 뺐다	
	(물이) 샌다 :	(수효를) 샌다	

또한 움라우트를 일으킨 例들에서 ‘에’와 ‘애’의 區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6)	[ɛ]의 例		[e]의 例
	정강이 [čəŋgɛi]		두꺼비 [ʔtuʔkebi]
	잡혀었지 [čəpʰeʔce]		벗기교 [peʔkigo]
	닭이 [tekʰi]		문턱이 [muntʰegi]
	가기가(去) [kegiga]		먹기가(食) [meʔkiga]

그런데, 基底에서부터 /ü/나 /ö/로 表示되는 것들은 ‘ü→i’와 ‘ö→e’의 變化를 겪기 쉬운데 比하여(例, 귀 [kü~ki], 뒤 [tü~ti], 뇌성 [nösəŋ~nesəŋ], 괴물 [kömul~kemul] 등) 움라우트에 의하여 導出된 [ü]나 [ö]는 [i]나 [e]로 변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 또한, 움라우트에 의하여 /e/와 /ɛ/의 區別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e/와 /ɛ/는 혼동을 보이고 있고 /i/와 /ə/의 경우에도 第二音節以下에서는 혼동되는 例가 많다. 또한 [ə:]는 [i:]로 變하는 例는 第一音節에서도 보이므로 [i]와 [ə]의 安全間隔이 좁아지게 되면 결국 (12)의 體系와 같은 것이 될 것이고 [low]라는 資質은 redundant 해짐으로써 示差性을 잃을 論理的 可能性도 있다.



### 5. 結 論

지금까지 本稿는 通時論的 觀點에서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를 論議하여 보았다. 中央語와 南部方言의 音韻體系가 서로 다른 變化를 겪었을 可能性이 示唆된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本稿는 이러한 可能性을 추적해 본 試考의 性格을 띄므로 여러가지 面에서 再考를 要하는 部分이 많음을 自認한다. 또한 거의 全無한 方言의 文獻資料 때문에 南部方言의 史的發達을 論議함에 커다란 장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難點에도 불구하고 本稿는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가 다음과 같이 再構될 수 있음을 論議하였다.

(17)	이	으	우	i	u	u
	어	으	오	e	Λ	o
		아		a		

‘으>오’, ‘으>우’, ‘으>오’, ‘으>아’의 變化를 自然部類와 音韻論的 普遍性이라는 概念을 基準으로 하여 解釋하므로써, 母音體系를 再構해 보았다. (17)과 같이 再構된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는 中央語의 體系로 假定되어 온 (8)의 (7), (L)案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는 體系이다. 만약에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를 (17), 中央語의 母音體系를 (8)의 (L)이라 한다면 ‘으>오’ 圓唇母音化가 中央語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고 求禮地域語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結論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17)에서는 ‘으’와 ‘으’가 同時에 圓唇母音化를 겪을 수 있었음에 反하여 (8)의 (L)에서는 ‘으’만이 圓唇母音化를 겪을 수 있는 것이다. (8)의 (L)에서 ‘으’뿐만 아니라 ‘으’도 圓唇母音化를 겪게 된다면 ‘으’는 수평적 音韻變化요, ‘으’는 수직적인 音韻變化라는 結果를 가져오므로 一般성을 잃기 때문이다. 결국 中央語와 求禮地域語의 ‘으>오’의 有無差異는 各各의 母音體系上的 異質性과 關聯된다 할 것이다. 이와는 反對로 求禮地域語와 中央語의 母音體系는 서로 같되 ‘으>아’와 圓唇母音化의 適用順序만이 다르다는 立場이 있을 수

있다. Rule Reordering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Elsewhere의 環境에서 規則이 먼저 適用된다는 不合理한 點과 文獻資料에 圓唇母音化가 ‘ $\phi > \text{아}$ ’에 先行하여 나타난다는 點에서 否定되었다. 이는 Rule Reordering에 依한 解釋에서는 두 方言間에 두 개의 規則이 完全히 同一하다고 假定하고 있는 데에 問題가 있음을 말해 준다. 가령 /i,e,a,o,u/의 5母音體系에서 나타나는 ‘e→i’와 /i,e,a,u/의 4母音體系에서 나타나는 ‘e→i’는 體系上的 異質性을 고려할 때 完全히 同價인 音韻變化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17)의 體系는 中央語와의 方言差를 밝혀 주는 데에도 바람직한 것이다.

(17)의 體系에서 ‘ $\phi$ ’가 完全히 消失하게 되고 뒤이어 ‘어’가 中舌로 移動하게 되면 아주 不安定한 體系가 되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二重母音의 單母音化가 일어났으리라 추측한다. 이러한 것은 表記法體系에 가려져 쉽사리 파악될 수 없는 것인 바 假定的 段階에 머문다. 二重母音이 單母音化하였음은 올라우트現象에서 잘 나타난다. 올라우트에 의하면 現代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는 中央語와 같은 10母音體系인 것으로 밝혀진다. 東南方言이 6母音體系를 갖는 것으로 흔히 主張된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볼 때, 흥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東南方言과 西南方言의 差異를 詳論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요약해 본 것인데 音韻體系를 systematic phonemic level로 처리한다면 求禮地域語의 母音體系는 [high], [back], [low], [round]라는 네 가지 示差的 資質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Redundancy는 以前の 어느 段階에서의 母音體系와 現代求禮地域語의 그것이 서로 다를 수 있게 한다. 만약 現代求禮地域語의 10母音體系가 東南方言과 같은 6母音體系로 變化한다면 [low]라는 資質은 systemic phonemic level에서조차 示差性을 喪失하게 되어 音韻體系的 變化에 決定的인 特徵이 될 것이다. 한편 再音素化(rephonemicize)에 의한 態度에 따른다면<sup>22)</sup>(17)의 母音體系는 더 깊은 次元에서 다른 方式으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나 本稿에서는 역시

22) 김진우(1968) 및 S. E. Martin(1951) 참조. Martin의 論議는 構造主義의 成分分析論에 입각한 것이고 김진우의 論議는 生成論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兩者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진우(1968)에서는 共時的 言語現象과 通時的 現象을 혼동하고 있다는 點에 問題가 많을 것 같다.

詳論하지 않았다.

## 참 고 문 헌

- 金完鎭(1963), “母音體系の 新考察” 「震檀學報」 24.  
 (1965), “原始國語 母音論에 關係된 數三의 課題” 「震檀學報」 28.  
 ——(1975), “全羅道方言 音韻論의 研究 方向設定을 爲하여” 「어학」 2.  
 全北大.  
 李基文(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震檀學報」 32.  
 ——(1972),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7 ㄱ), 「國語音韻史研究」 國語學會.  
 ——(1977 ㄴ), “濟州島方言의 ‘ㅇ’에 관련된 몇 問題” 「國語國文學論叢」  
 (李崇寧先生古稀記念)  
 李敦柱(1969), “全南方言에 대한 考察” 「語文學論集」 5. 全南大  
 李秉根(1970 ㄱ),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唇母音化” 「東亞文化」 9.  
 ——(1970 ㄴ),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學術院論文集」 9.  
 ——(1971), “雲峰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1976), “[새깅이](土蝦)의 通時音韻論” 「어학」 3. 全北大.  
 李崇寧(1954), “十五世紀의 母音體系와 二重母音의 Kontraktion의 發達에  
 對하여” 「東方學志」 1.  
 李翊燮(1972),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의 考察” 「震檀學報」 33.  
 田光鉉(1970), “[勸念要錄]에 대하여” 「駱山語文」 2.  
 Chomsky, N. &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Dinnsen, D. A. & A. Koutsoudas (1976), On the Explanation of Rule  
 Reordering (Reproduced by IULC)  
 Hooper, J. 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  
*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Hyman, L.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 Winston)
- Kim, C-W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 King, R.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Kiparsky, P. (1968 ㄱ), How Abstract is Phonology? (Reproduced by IULC)
- (1968 ㄴ),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ed. by E. Bach and R. T. Harms)
- (1971), Phonological Change (Reproduced by IULC)
- (1972), Explanation in Phonology (*Goals of Linguistic Theory*, ed. by S. Peters)
- (1973 ㄱ), "Elsewhere" in Phonology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ed. by S. R. Anderson and P. Kiparsky)
- Koutsoudas, A., G. Sanders and C. Noll (1974),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50)
- Martin, S. E. (1951), Korean Phonemics (*Language* 21)
- Mouton, W. E. (1968), Structural Dialectology (*Language* 44)
- Schane, S. A. (1973 ㄱ), [back] and [round]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ed. by S. R. Anderson and P. Kiparsky)
- (1973 ㄴ),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Vago, R. M. (1972), Abstract Vowel Harmony Systems in Uralic and Altaic Languages. (Reproduced by IULC)
- Weinreich, U. (1968), *Languages in Contact* (Mouton)